

우시오다케 신사

우시오다케 신사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선조에 관한 신화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 ‘우미사치히코’를 모시는 일본에서 유일한 신사입니다. 뛰어난 어부였던 우미사치히코는 어느 날 사냥의 명인이었던 동생 야마사치비코에게서 서로가 맡은 일의 도구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받아 도구를 교환하지만, 야마사치비코는 우미사치히코의 낚싯바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형제 사이는 수년이나 틀어지게 되고, 끝내 동생인 야마사치비코가 형인 우미사치히코를 돛단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우미사치히코는 수일 동안 표류한 끝에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해변에 충돌하면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우시오다케 신사가 있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시오다케 신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두 형제 간에 있었던 불화를 피하고자 오늘날까지 다른 사람의 바늘을 빌리지 않는다는 전통을 수 세기에 걸쳐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시오다케 신사의 창건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종교 시설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우시오다케 신사가 이 지역의 다이묘(영주)였던 이토 가문의 지원을 받아 유지되었으며, 1832년에는 이토 가문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우시오다케 신사에서 실시되는 가구라(신에게 봉납하는 춤) 또한 에도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구라는 매년 2월 11일에 새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우미사치히코와 야마사치비코의 신화나 여러 다른 전설을 각색한 내용 등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멧돼지의 머리카락이나 생선을 신에게 봉납하는 등 어업 및 수렵과 깊은 관련이 있는 축제입니다.